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디도서 2:11~3:8. 침례를 받고 선행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20~25분)

살아 있는 식물을 보여준다. 칠판에 물, 빛이라고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없어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을까?

- 한 가지가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칠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선한 행함)이라고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가?

-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원리들을 식물의 필요 사항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바울이 강조하는 교리를 찾기 위해 **디도서 1장 16절, 2장 7절, 14절, 3장 8절, 14절을 읽는다.**

- 선한 일이라 무엇인가?

- 선한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디도서 3장 3~5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은 선한 일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구절과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 바울은 모순된 말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여러분은 바울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로운 행위와 자비가 모두 필요하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은 죄를 지은 각 개개인의 신앙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은 회개하고 침례받으며 성신을 받으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도행전 2:37~38 참조) ...”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이라.’(니파이후서 25:23)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 일이라 참으로 회개와 침례와 계명을 지킴과 끝까지 견딤을 포함합니다.(앨마서 24:11 참조)” (Conference Report, 1998년 4월, 76~77쪽;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59~60쪽)

학생들에게 **디도서 3장 4~8절을** 읽게 한다. 그 후에 학생들이 가상의 친구에게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자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를 편지로 쓰게 한다.

디도서 2:1~15. 경건하지 못한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15~20분)

비판적이고 성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유쾌하지 못한가? **디도서 1장 10~14절을** 읽고, 디도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들의 신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떠할까?

-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 여러분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의 권고를 찾아보면서 **디도서 3장 10~11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이 멀리하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멀리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가? 언제인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6:1 참조)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네 칸을 만들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디도서 2장 2~6절**에서 바울이 바른 교훈(1절)을 주었던 네 그룹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한다. 이 네 그룹을 각 칸의 제목으로 쓰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1~8절을 주의 깊게 읽고 각 칸에 바울이 각 그룹에게 주고자 했던 권고를 열거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고를 상고해 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주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킬 수는 있다.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디도서 2장 11~1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구주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 스스로의 생활을 변화시키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